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과 2002년 고용전망

◆ 본 자료는 지난 1, 2월에 발생한 실업률의 급속한 하락추세를 반영하는 수정된 2002년의 노동시장 전망임.

- 경기의 급속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2002년 1월과 2월 예상보다 낮은 3.7퍼센트의 실업률을 기록
- 2002년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도 당초 4% 정도에서 5%대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 현재의 실업률 추세를 볼 때 4, 5월에 실업률이 2%대로 진입할 것이며 연중 실업률은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하락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때임
-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여성과 준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과 2002년 고용전망

I. 급속한 경기회복세

◆ 2001년 4/4분기부터 경기둔화에서 벗어나는 양상이 뚜렷해짐

- 2000년 4/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현상이 2001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
- 2001년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9%까지 하락하였으나 4/4분기에는 3.7%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의 당초 200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9%였으나 전망치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각 해외기관들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전망을 밝히고 있음.

◆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경기가 급속 회복

- 산업부문별로 보면, 2001년 3/4분기에 7.6%, 4/4분기에 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4/4분기에 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다만 제조업의 성장률은 아직 부진한 편
 - 2001년 3/4분기에 -1.7%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2.1%로 플러스로 반전

- 최종 소비지출은 2001년 4/4분기에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여전히 미미한 편
 - 설비투자는 2001년 3/4분기에 -11.8%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1.6%의 미미하나마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
- 앞으로 국내경기는 내수호조에 수출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

II. 최근 노동시장의 동향

◆ 실업률이 급속하게 하락

- 2001년 4/4분기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하고 전분기 대비로도 0.1%포인트 하락하여 통상 4/4분기가 3/4분기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임.
- 2002년 1월과 2월에 실업률은 3.7%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0.9%~1.3%포인트나 하락하여 실업률 하락폭이 예상보다 급속하게 커지고 있음
 - 또한 2월 중 실업자는 802천 명으로 1월의 819천 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예년의 양상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급속한 취업자의 증가로 실업률이 하락

- 이러한 실업률의 급속한 하락은 경기의 호전에 따른 취업의 급속한 증가에 연유하며 최근 취업자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01년 4/4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여 전분기의 취업자 증가율 1.4%보다 0.5%포인트나 상승

- 2001년 12월 취업자 증가율은 2.3%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1월에는 3.6%, 2월에는 4.5%로 상승하고 있음

○ 금년 1월과 2월 중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9천 명, 903천 명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이 1~2월에 1.0%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취업자의 증가로 흡수되어 실업자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월에는 1.6%, 2월에는 1.9% 감소

<표 1> 최근의 노동시장 주요지표

분기	2001년				(단위: 십억, 천 명, %)		
	I	II	III	IV	2001년 12월	2002년 1월	2월
국내총생산 (성장률)	113,196 (3.7)	121,291 (2.7)	123,313 (1.9)	133,972 (3.7)			
15세 이상인구 (증가율)	36,358 (1.0)	36,435 (1.0)	36,530 (0.9)	36,614 (0.9)	36,641 (0.9)	36,677 (0.9)	36,707 (1.0)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1,432 (0.1)	22,468 (1.6)	22,426 (1.00)	22,399 (1.4)	22,109 (1.7)	21,845 (2.7)	21,901 (3.0)
경제활동참가율	58.9 (-0.6)	61.7 (0.4)	61.4 (0.1)	61.2 (0.4)	60.3 (0.4)	59.6 (1.1)	59.7 (0.9)
취업자	20,403 (0.4)	21,677 (1.9)	21,694 (1.4)	21,673 (1.9)	21,347 (2.3)	21,025 (3.6)	21,099 (4.5)
실업자	1,029	791	732	725	762	819	802
실업률	4.8 (-0.3)	3.5 (-0.3)	3.3 (-0.3)	3.2 (-0.5)	3.4 (-0.7)	3.7 (-0.9)	3.7 (-1.3)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926 (2.4)	13,967 (-0.04)	14,104 (0.8)	14,216 (0.0)	14,533 (-0.3)	14,832 (-1.6)	14,806 (-1.9)

주: ()안의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또는 증감률.

III. 수정 고용전망

◆ 최근 동향을 반영한 실업률의 수정전망이 불가피

- 당초 (지난 1월 발표) 2002년 경제성장률을 4%대로 가정하여 실업률은 3.5%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경기가 예상외로 조속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수출부문의 성장이 뒤받침될 경우 2002년의 경제성장률은 5%대, 경우에 따라서는 6%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
- 따라서 경기를 반영한 노동시장전망의 수정이 필요하게 됨.

◆ 실업률의 추세예측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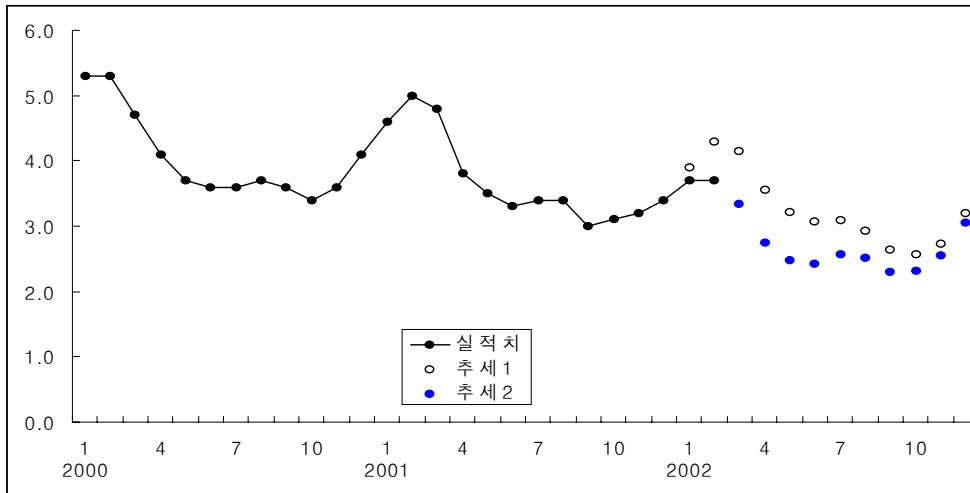
- 최근 7년(1995년 1월-2001년 12월)의 월별 실업률을 시계열분석은

$$\begin{aligned}(\text{당월 실업률}) &= 1.43 (\text{전월 실업률}) - 0.52 (\text{두달 전 실업률}) \\ &\quad + 0.07 (\text{경제위기경과기간}) \\ &\quad - 0.0029 (\text{경제위기경과기간})^2 \\ &\quad - 0.0008 (\text{선행종합지수}) + (\text{월별가변수}) \\ R^2 &= 0.9873, D.W. = 2.10\end{aligned}$$

- 이전 실업률이 현재 실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선행종합지수로 표현된 경기회복세는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짐
- 이 추정식을 2001년 12월까지의 자료만 사용하여 2002년의 월별 실업률을 전망하면 그림의 (○)로 표시된 추세를 얻을 수 있음
 - 1월의 경우 예측되는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며, 2월에 경우에는 그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특히 2월의 실업률이 추세보다 상당히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2002년 전망에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 급속하게 실업률이 하락한 금년 1월과 2월의 자료를 전망에 활용할 경우에는 그림의 (●)로 표시된 낮은 실업률 추세를 얻게 됨.
 - 이 경우 4월부터 실업률은 2%대로 진입하게 됨.

[그림 1] 최근 실업률의 추이 및 전망



◆ 2002년 실업률은 3.0%로 전망됨

- 2002년 중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2.2%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는 3.0% 증가하여 실업자는 연평균 670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9천 명 감소
- 2002년 실업률은 연중으로 3.0%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할 것
 - 1/4분기에 3.6%의 실업률을 보일 것이나 2/4분기부터 실업률이 더욱 하락하여 이후에는 2.7~2.8%에 머물 것임
 - 따라서 실업자 수는 2/4분기에 63만 명으로 감소하고 3/4분기에는 60만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4/4분기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62만 명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1/4분기에 4.2%의 고성장을 보였던 취업자는 2/4분기와 3/4분기에는 2.9%로 안정될 것이며 4/4분기는 2.2%에 머물 것으로 보임
 - 월드컵과 대통령선거가 추가로 고용을 늘일 가능성도 존재

<표 2> 2002년 고용전망

(단위: 천 명, %)

	2001년 연중	2002년 연중	I	II	III	IV
생산가능인구	36,484	36,828	36,713	36,792	36,868	36,938
경제활동인구	22,181	22,673	21,058	22,933	22,913	22,787
	(1.1)	(2.2)	(2.9)	(2.1)	(2.2)	(1.7)
경제활동참가율	60.8	61.6	60.1	62.3	62.1	61.7
취업자	21,362	22,003	21,256	22,296	22,301	22,158
	(1.4)	(3.0)	(4.2)	(2.9)	(2.8)	(2.2)
실업자	819	670	802	637	612	629
실업률	3.7	3.0	3.6	2.8	2.7	2.8

IV. 노동시장 정책과제

◆ 실업률의 급속한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임

-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999년 1.1%에서 2001년에는 1.28%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률은 훨씬 높은 상태
 - 2001년 인력부족률은 5~9인 사업체의 경우 2.03%, 10~299인 사업체의 경우는 1.5%로 나타남.
 - 경기의 급속한 회복과 실업률의 급락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클린3D 사업의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공급을 유인
 - 외국인고용제도의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의 경감

◆ 고실업에서는 고용창출이 우선이었으나 저실업에서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2001년 중 취업 증가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
 - 201천 명의 취업자 증가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82%
 - 일용직의 일자리는 오히려 140천 명 감소

- 반면 최근에는 건설업 호황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함에 따라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

- ◆ 단기 실업대책을 지양하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2002년 중 실업률은 3.0%로 전망되며 이보다 낮아질 가망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될 것

-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대책은 목표집단에 치중하는 실업대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확충 및 WorkNet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여전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9%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층을 목표로 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

- 중장기 관점에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는 고용정책이 필요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돕고 준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기
 - ※ 남성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79.3%에서 2001년 71.3%로 크게 하락한 수준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49.5%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로 하락한 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48.8%에 불과